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금강경 ③ 〈끝〉

글쓴이

정 호 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

경전 속의 禪 사상 15

대립 분별 집착 버려야 참마음
禪은 일상속 반야실현 강조

금강경에는 "여래께서는 마음의 흐름은 마음의 흐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흐름이라고 한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앞서 언급한 즉비(卽非)의 논리가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강경은 바로 이어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한 순간도 쉼 없이 흘러가는 마음을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우리는 커다란 것을 단번에 파악할 수 없을 때, 작은 부분으로 쪼개어 하나 하나를 살펴보고 다시 이를 결합하여 전체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마음을 과거 · 현재 · 미래로 쪼갠다. 이 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어서 알 수 없는 것이며, 과거는 이미 가버린 것이어서 붙잡을 수 없다. 불가득이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가. 올해는 내년과 작년 사이에 있어 제법 긴 시간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달은 지난달과 다음달 사이에 있으며, 오늘은 내일과 어제 사이에 있다. 우리는 하루를 시간으로, 시간을 분으로, 분을 초로 쪼갤 수 있으며, 이렇게 쪼개는 일은 즈금이라도 길이가 있다면 언제까지나 가능하다.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것은 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제 소위 '현재'는 미래와 과거의 경계에 지나지 않게 된다. 현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심도 불가득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이며,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현재이다. 결국 시간은 현재가 중첩된 것이며, 현재가 흘러가면서 남기는 궤적이다. 그런데 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무리 겹쳐진다고 해도 길이를 갖게 되는가. 영에다 영을 아무리 더해도 영이다. 영에 지나지 않는 현재가 아무리 쌓여도 시간의 흐름을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확실히 있으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분석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마음은 찾을 길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석적 사고, 분별의식을 버려야 한다.

'말해도 30방, 말하지 않아도 30방'으로 유명한 덕산(德山, 780-865) 스님이 경에는 밝으나 아직 선의 세계를 알지 못했을 때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스님은 유식에 깊은 조예가 있으며 금강경도 깊이 연구하여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러던 중 남방에서 선종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그 본성을 알면 곧 성불한다'는 말을 듣고 이는 성불의 어려움을 모르는 마구니의 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를 논파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풍주 땅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자 한 식당에 들렸다. 이 집을 운영하는 노파가 점심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하였다. "등에 진 걸망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덕산이 금강경이라 대답하자, 노파는 다시 질문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은 점심을 하고자 하는데, 점찍고자 하는 그 마음(點心)은 과거심입니까, 미래심입니까, 현재심입니까." 이에 대해 덕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점심을 하지 못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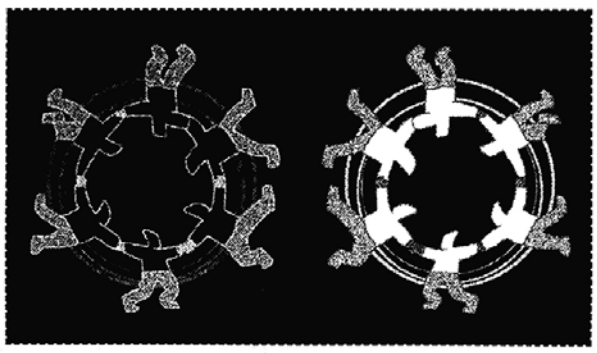
간단히 요약하여 분별심은 버려져야 한다. 무심(無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심은 마음이 텅 비어버려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무심은 곧 일심(一心)이며, 이 일심이야말로 정심(正心)이다. 과거 · 현재 · 미래는 세 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시간 즉 절대적 현재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운문(雲門, 864-949) 스님의 '하루 하루가 좋은 날이다'(日日是好日)는 말은 영원이 현재에 응축되어 있음을 지극히 간단하게 그러나 아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루는 어제, 오늘의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eternal now)인 것이다.

금강경에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구절이 있다. 선종의 6조 혜능(慧能, 638-713) 스님이 바로 이 대목을 듣고 깨우쳤다고 하여 더욱 유명해진 구절이다. 금강경의 이 구절은 소박하게는 대립 · 분별 · 집착을 버린 참 마음을 가져야 함을 지적하고, 그럼으로써 너와 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보시를 행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선에서는 깨달음의 요체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진술이 주체적 명제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이 일상성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상성은 절대성에 다름 아니다.

금강경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반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절대적 반야를 일상화하고 또 일상에서 절대성을 발견하는 것은 선의 몫이다. 선종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다.

과학산책

항생제와 세균 ②



항생제 남용 방지해야
병균의 저항 핵전쟁보다 심각
하루 8000명 결핵으로 사망

과거에는 항생제가 결핵균을 쉽게 격퇴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결핵균은 전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대한결핵협회가 세계 결핵의 날(3월 24일)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한국의 결핵 사망자 수는 3천4백5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7.4명꼴이고 매년 14만2천여명의 새로운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의 삼분의 일이 감염되었고 200에서 300만명이 매년 사망한다. 하루에 8000명이 결핵에 의해 사망하는 꼴이다. 전염성 질병분야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결핵이다. 결핵균은 의학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에이즈 환자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환자에게서 특히 심하다.

가장 불길한 것은 일련의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진 결핵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는 항생제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졌다는 것이 곧바로 치료를 의미하던 시대는 지나 간 것이다. 특히 가난한 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약물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항생제 저항성 결핵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항생제 저항성 결핵의 치료는 표준 치료에 비해 적어도 100배 이상 비싸다.

왜 한때 모습을 감추었던 결핵이 다시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는 결핵 치료 과정과 관련이 있다. 결핵 치료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정도 끊이지 않고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면 증세가 약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을 약의 복용을 중단하게 된다. 병균은 완전히 격퇴된 것이 아니고 잠복하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이들 잔류 병균들이 치료 약물에 대해 저항성을 가져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의학 협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결핵균만 문제가 아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항균성 약품에 저항하는 박테리아 종이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항균성 약품에 대한 병균의 저항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핵전쟁 보다 더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는 11년간 암환자에 대한 연구를 했다. 1983년과 1990년 사이에는 항생제에 저항적인 박테리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1991년과 1993년 사이에는 실험 참가자의 28%가 저항성을 보였다. 이 기간동안 환자들의 항생제 복용이 1.4%에서 45%로 늘었었다.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노출될 때마다 이들은 저항하여 살아남는 놈만이 자손을 남길 수 있다는 자연의 혹독한 시련 앞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저항성이 발전되는 것을 느리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애당초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없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무게로 따지면 전체 항생제의 반이 가축과 물고기에 병을 예방하려는 의도로 먹여지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먹여진 항생제를 먹거리를 통해 먹게 된다. 항생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먹거리도 단속해야 할 지경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병원균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저항성을 개발해야만 한다. 새로운 항생제를 만든다고 하면 병원균은 또다시 새로운 저항성을 개발할 것이다. 세균이 살려고 발버둥 거리는 모습이나 인간이 살려고 병원균을 죽이려는 모습이나 똑 같은 삶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 인간의 행동만이 절대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소중한 모든 생명이 같이 살리고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의증이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한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4

반야바라밀다 문헌 ④

"색수상행식 바로 보라"
영원한 자아는 허구…개인의 경험 중요

"사문이여, 인간에게 있어서 말하고 경험하고 인식하며, 훌륭한 행위나 사악한 행위의 결과를 지금 여기저기서 겪고 있는 이러한 자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영속적으로 불변하며 영원의 토대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자아이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견해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아함경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덕목은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그 어느 것도 끝없는 윤가미일 뿐이며 혼란상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형식화하고 개념화한다고 해도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중도'를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중도는 산스크리트어 'madhyama pratipad'의 번역으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정(中正)의 도(道)이며, 모든 집착이나 분별을 초월한 무소득의 상태를 뜻한다.

우리는 경전을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부처님은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 우리를 파멸과 불안 그리고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욕구와 갈망의 종식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이 가르친 중도의 핵심은 편견이나 어떠한 종류의 개념적 선입견에 대해서도 애착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사물 그대로의 본질을 체험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힘인 지혜(prajna · 般若)를 얻는 데 있다.

부처님은 중생의 생명의 주체인 '자아(atman)'를 영원한 실체의 존재'로도, 또 '자아를 단순히 무(無)'로도 여기지 않았다. '영원한 실체론'은 집착과 애착과 갈망과 그로 인한 좌절이나 불안 · 괴로움 등으로 이끌어갈 뿐이며, '무의 개념'은 자발적인 도덕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연기법(pratiyasamutpada)은 이같은 '중도'를 설명하는 좋은 예이다. 당시 철학자들은 인과의 본질을 이론으로만 설명하고자 했지만, 부처님은 조건에 의하여 연결된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자아에 대한 관념뿐만 아니라 기능과 자유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자아를 경험의 소유자로 간주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 · 물리적 흐름을 통제하는 영속적인 실체' 혹은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에 대한 통속적인 개념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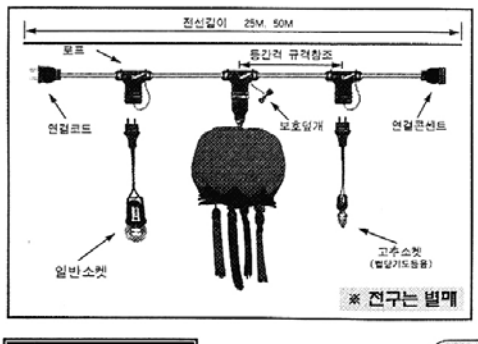
부처님이 우리의 경험을 신체적인 과정(rupa · 色), 감각이라고 하는 심적 과정(vedana · 受), 지각(samjna · 想)과 행위의 추진력(samskara · 行)과 의식(vijnana · 識) 등으로 구분하고, 정신 · 물리적 과정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처님은 자아라는 용어나 개념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자아 즉,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발성과 노력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경험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자아가 영원하다고 하는 개념은 모두 기만일 뿐이며, 우리를 어리석음 · 집착 · 좌절 · 불안 · 괴로움 등으로 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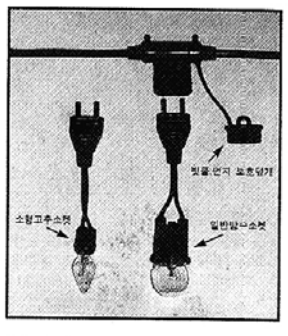
영국의 시인 쉘리의 시구는 우리에게 관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 본질과 실제에 관하여 제기되는 모든 논쟁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을 수 있게 한다.

"삶이란 색유리로 된 집과도 같아서
죽음이 그를 산산이 부술 때까지
영원의 투명한 빛을 물들이고 있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 · 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 · 사찰 · 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 · 납품)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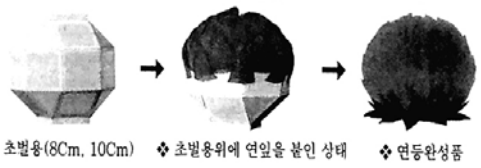
대 원 기 업 代表 吳 大 權(光 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 · 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 · 호 남 지 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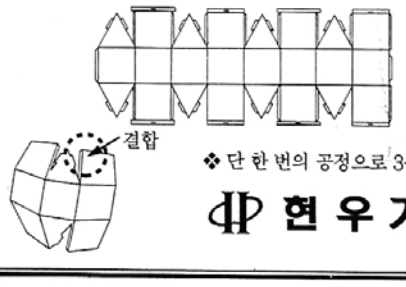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 우 기 획